

## 신비 안에서 지도 그려나가기: 가운데 공간인 이 시대의 공동식별

### **Mapping in Mystery: Communal discernment in our time of middle space**

(글쓴이: 낸시 쉬렉(Nancy Schreck, OSF)수녀와 캐롤 쉬니크(Carole Shinnick, SSND)수녀)

#### 개요

이 글은 낸시 쉬렉 수녀수녀와 함께 쉬는 시간에 주고 받은 간단한 질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익숙했던 모든 지표들이 요원해져서 사회나 교회에서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에 처한 수도생활을 사는 수도자들에게 미래 방향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을 도출한다:

- 가운데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동식별을 통해 드러난 방향 선언문은 무엇일까?
- 이 가운데 공간에 있는 식별자들에게 필요한 선물과 은총은 무엇인가?
- 이 가운데 공간이라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이 지녀야 할 선물은 무엇인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과 그 외의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함이다.

#### 가운데 공간(middle space)

낸시 쉬렉수녀는 2014년 LCWR(미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에서 '가운데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때 '가운데 공간'을 "과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지고 미래에 다가올 것이 분명치 않은 창조적이면서 혼동의 때"라고 소개했다. 낸시 수녀는 "우리 (여성수도자들)는 이 가운데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이 공간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도래하고, 세계관이나 우주관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동시에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공존하는 곳이다." (1) 그리고 바로 이 공간이야말로 여성수도자들에게 증거의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회원 감소와 축소되어 가는 수도회 구조에 대한 지식...변화하는 영적/신학적 조망...이러한 감소(축소)현상 속에서도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삶(왜냐하면)...이러한 지식과 새로운 삶은 관상의 열매이고 우리의 증거적 삶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은총이기 때문이다..."라고 낸시 수녀는 말한다. 더불어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 윤곽, 어림잡음, 혹은 '쉬운 여섯 단계'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껏해야 알쏭달쏭한 것이다."(2)라고 덧붙인다.

#### 교착상태(난관)와 어둔 밤(Impasse and the Dark Night)

낸시 수녀의 가운데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1984년 "교착상태와 어둔 밤"이라는 제목의 영향력있는

에세이를 저술한 콘스탄스 피츠제럴드(OCD)수녀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이 글에서 콘스탄스수녀는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개개인의 '어둔 밤' 체험을 사회 그룹들도 같이 겪는다고 설명한다. 글의 도입부분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수 많은 어둔 밤 혹은 교착상태를 경험하면서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만일 진화의 측면에서 이 시대를 어둔 밤, 즉 위기와 변화의 시기로서 인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조화를 배우기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할 시간이라고 정의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피츠제럴드수녀는 이 교착상태를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설명한다. "...우리를 가둔 그 무엇인가로부터 피할 길이 없고, 합리적인 출구도 없으며, 아무런 가망조차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난관에 부딪히면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행동양식조차 그 기능을 잃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문제 자체에서만 아니라 이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조차 체험할 수 있다. 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 미국인들은 난관(교착상태)을 직면할, 즉 고된 업무, 연구, 통계, 합리적 분석이나 훌륭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와 어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3)

### 가운데 공간에서의 공동 식별

가운데 공간과 교착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한 여러 수단과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 준다. 따라서 모든 과거의 지표와 방법을 버려야 할 때이다. 이전 역설과 모호함을 친구로 삼아야 할 때다. 즉, 기다림, 지혜, 그리고 상상을 위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는 총회나, 미래 방향을 식별하는 구성원들의 여러 다른 모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미 지도가 그려진 후 지형이 바뀌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운데 공간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공동식별을 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동식별은 각 구성원의 개인 식별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를 능가하기도 한다. 그룹의 식별은 개인의 식별과 관련된다. 한 개인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우리가 부름 받은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다.

LCWR의 정기간행물인 The Occasional Papers에서 나는 "공동식별은 "생성적인(*generative*: 역주-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산적인'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이하 '생성적인'으로 번역) 능력을 지닌 성숙한 성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즉, 생성적인 성인이란 과거의 다양한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결코 자신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갈망하는 미래를 향해 에너지와 노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했다. (4)다시 말해서, 공동식별을 위해서는 식별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다. 또 그룹의 의견에 자신의 입장을 내려 놓을 수 있을 만큼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 미래 방향 식별하기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방향 선언문의 경우 매우 잘 짜인 전략 계획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를 함축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노력했다. 더러는 리더십이 완수한 일을 점검하는 체크 리스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컨대, 이 가운데 공간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비추기 위해 탐조등을 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손전등 하나뿐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복잡하지 않은 방향 선언문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문서는 구성원들이 공동 식별한 희망과 꿈의 진수를 드러낸다. 또 공동체의 핵심인 은사, 이야기, 마음을 잘 표현해 준다. 이러한 문서는 “공동 식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부름 받은 곳이 바로 이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표명하게 된다. 이러한 선언문은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투자하고자 할 때, 앞으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삶을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게 된다.

가운데 공간에서 마련한 방향 선언문은 명료한 지침이 되고, 자유로울 만큼 무겁지 않으며,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바쿠서 2장2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 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5)

## 가운데 공간에서의 식별자

식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식별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기도로 청해야 할 은총은 무엇인가? 이미 말한 바대로, 공동식별은 이미 그 공동체가 성숙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는 이를 “생성적인”이라고 칭했다. 생성적 공동체는 재산, 자산, 사도직, 유산등과 같은 여러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러나 그들이 깊이 갈망하고 관심을 갖는 미래에 투자하려는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공동식별을 위해 모인 개개인은 관상기도를 통해 충분히 훈련되고 성장되어야 한다. 로날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 OMI)신부는 보다 성숙한 제자됨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보다 관대하게, 보다 온전히 내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안한다. (6)

따라서, 가운데 공간에서 공동식별을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앞에 전개되는 회개의 전 과정과 여정에 헌신한다.
- 개인 관상기도와 공동식별 과정 중의 공동 관상 대화(7)에 충실 한다.

- 타인이 말할 때 논쟁이나 반론을 준비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저항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한다.
- 진정으로, 확실하게, 간단하게 말한다.
-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때 자신의 입장을 선물을 건네 듯 겸허한 태도로 제안한다.
- 이기려는 마음, 뛰어나려는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 진다.
- 모호함에 편안함을 갖는다.
-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고 과거의 실망을 통해 성장해 왔다.
- 하나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 공동 예언적 증거에 더 헌신한다.

### 가운데 공간에서의 리더

수도생활에 있어 이 가운데 공간에서 필요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식별자에 대한 자질요소와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앞 내용의 제목을 “가운데 공간에서의 식별자” 대신 “가운데 공간에서의 리더”라고 바꿔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운데 공간에서의 리더는 어느 면에서 “식별자의 수장(首長) Discerners -in- Chief”이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회원들을 공동식별자로 참여 시키는 사람이다.

1997년 LCWR에서 “리더십의 요건(Dimensions of Leadership)”이라는 글을 발행했다. 이 글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팀에 요구되는 여러 자질과 기술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8) 가운데 공간에 있는 리더들의 렌즈로 이 글을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구절의 경우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면,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

-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 (non-anxious presence) (*역주: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불안함을 인정하되 이로 인해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지닌 사람*)
-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시대에 설득력 있게 은사의 역동적 감각을 명료화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더불어 희망을 전달한다.
- 중요하거나 대립적인 주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
- 합의(협상), 중재, 경청, 위임, 협력, 촉진할 수 있다.

## 결론

영성 작가 데보라 스미스 더글라스(Deborah Smith Douglas)는 “올바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되이 살 것인가 (Being Right or Ringing True)”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레너드 코헨의 'Anthem(역주: 한글 번역본에서는 “불완전하게 살더라도”라고 번역 되어 있음)”이라는 시를 인용한다.

*“ 아직 소리 나는 종을 울려야 하리*

*너를 완전히 하여 봉헌할 생각일랑, 잊어야 하리*

*깨지고 금 간 틈이 있지*

*모든 것에는 그런 깨진 틈이 있어*

*바로 거기로 빛이 들어오리니/ 바로 거기로” (10)*

데보라 스미스는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 속의 저 틈새로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사랑 안에 살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한다.

가운데 공간에서의 공동식별이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위 구절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완벽한 여러 총회를 치르고 규범적인 방향 선언문을 작성한 후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실낱 같은 단서를 기다리면서 방향을 찾느라 이 시대를 헤매며 주위를 불안하게 더듬게 될 수도 있다. (하느님! 제발, 한 가닥의 실마리라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우리의 것이고,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준다. 좋은 때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에스테르기의 한 구절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 (역주: 에스테르기 4장 14절)라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아마도 “꽉 쥔 주먹을 펴고” 손을 들어 올려 잔 모양을 만들어 하느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다 받으려는 태도일 것이다. “오! 하느님! 당신은 세세 대대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셨고 희망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신뢰하면서..... - 끝 -

## LCWR의 “리더십 자질 (Dimensions of Leadership)” 능력과 특성

### 1. 상징적(symbolic)

#### 의미 창출(meaning-making)

내적 세계의 풍요로움과 시대의 도전을 연결시키는 능력(영적인 리더십)

- 수도회의 정신(soul)을 교회 및 세상의 정신(soul)과 연결한다
-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시대에 설득력 있게 은사의 역동적 감각을 명료화한다.
- 사실과 추세의 유의성(중요성)을 본다.

### 2. 관계적(relational)

자신과 타인의 관계적 능력을 개발하고 고무하는데 최고 우선 순위를 둔다.

-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 경청한다, 감화를 준다, 신뢰를 불어넣는다 (인정해주고 봉사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 중요하거나 대립적인 주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

### 3. 조직적(organizational)

#### 구조적(structural)

학습하는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인지한다.

- 조직의 영위를 위한 법적, 재정적 측면을 이해한다.
- 효과적인 행정(수도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의제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 합의(협상)를 이룬다, 중재한다, 경청한다, 위임한다, 협력한다, 우선순위를 매긴다, 전략적으로 사고한다.